

내가 보는 월간양계

産學의 징검다리 역할을



朴 根 植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창간 10周年에 부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하에서 외골수질을 10년간을 걸어 온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더욱이 특수분야의 기술지의 10년간이란 생명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우선 이러한 일을 착안하였던 분들과 오늘날까지 무사히 양계분야및 관련 학계, 업체를 조화 있게 엮어준 편집부, 투고하신분, 광고업체등 관련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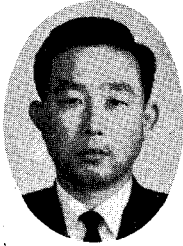
회고하건데 그동안 월간양계지는 우리나라 초창기의 낙후된 양계를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발전시켜온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다. 비단 잡지의 홍보활동, 기술보급, 정보의 매개체 뿐만 아니라 산학(産業과 學界)를 이어준 하나의 징검다리의 역할까지 하여 왔었다.

이제 창간 십주년을 맞아 아쉬웠던 점은 양계관련 분야가 10년동안 월간양계에서 뜻한것을 어느정도 소화시켜 월간양계가 바라는데 바에 호응하였으며 이로서 양계분야의 발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참여하였나를 각자가 생각할 시점에 온것같다. 우리가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아울러 월간양계가 뜻하는바에 얼마나 접근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는것도 뜻깊은 축하가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보다 현실을 정밀하게 분석 문제점의 소재를 파헤쳐 하나하나 양계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계속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원고도착순)

시야를 全世界로 확대시키길



金東坤
(국립종축장 부장)

우리 나라 養鷄産業은 國民所得의 高度 成長과 食生活改善으로 急激히 늘어나는 畜産物의 需要增大를 充足시키는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앞으로는 不足되는 國內의 肉類 資源을 充足시키는 값싼 高級 營養食品 供給源으로서 國民 保健向上에 繼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光復以後 畜産業이 눈부시게 發展한 中에서도 特히 닭의 飼養首數의 急増과 飼育規模의 擴大는 他 農業分野에 比하여 크게 伸張하였으며 오늘의 養鷄産業 位置는 農家の 副業的인 産業에서 完全히 脫皮하여 專業 또는 企業經營形態로 安定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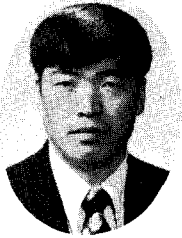
이러한 養鷄의 發展은 勿論 時代的인 次元에서도 變遷되고 있겠으나 月刊 養鷄가 發刊되므로써 技術習得, 經營改善 改良에 依한 影響이 至大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月刊 養鷄가 發刊하기까지는 여러가지 苦難이 많았으나 이 發展過程을 簡單히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養鷄는 1960年 以後부터 斬次的으로 基盤이 構築되기 始作하여 原時的인 農家副業 養鷄의 規模를 若干 脫皮하는 程度에 처해 있었으므로 其當時만해도 養鷄技術이나 情報에는 어두워 養鷄人들은 技術習得에 汲及한 狀能에 있었고 이 分野에 對한 技術的인 研究도 많지않은 時代가 되어서 1958年

에 家禽研究會가 組織되어 研究, 飼育運營方法 等を 討論과 세미나를 가졌으며 1962年에는 業者와 學者가 혼연일체가 되어 韓國家禽協會를 發足시켜 養鷄技術 講習會, 닭의 經濟能力檢定事業 等 括目할 만한 活動을 展開하기 始作하였읍니다.

그러다가 1969年 11月에 月刊 養鷄 創刊號가 發刊되어 여러 養鷄家들의 好評을 받아 日益 發行部數도 增加되어 現在로서는 養鷄家에게 없어서는 않되는 冊字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歲月은 흘러 月刊 養鷄 發刊 10週年이 되어서 本人은 月余前에 創刊當時의 月刊 養鷄誌를 펼쳐보니 其當時의 內容은 주로 養鷄의 飼養技術, 母鷄育雛, 綠飼料利用, 營養問題 等 農家 副業에서 벗어나 兼業 養鷄 또는 初步的인 專業 養鷄에 對한 事項이 約 100余면 範圍內에서 記載되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現在의 月刊 養鷄는 卷當 200余면以上, 많을 때는 300余면 程度로서 주로 世界의 養鷄動向, 肉類需給問題에 따른 鷄肉, 鷄卵 價格의 安定帶와 流通問題, 機械器具, 飼養管理改善에 따른 經營의 合理化, 家禽衛生問題 等으로서 完全히 專業 또는 大企業化 運營方向으로 雜誌內容이 變遷하고 있음을 볼 때 이제 韓國 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月刊 養鷄雜誌로 發展하여 가고 있을 뿐더러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養鷄發展에 막대한 貢獻을 한 것이 틀림 없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더 視野를 全 世界에 펼쳐 國內는 勿論 世界的인 鷄卵, 鷄肉의 需要供給, 새로운 飼育技術 改善, 施設 經營의 合理化는 勿論 家畜衛生問題 및 技術交流 等 養鷄發展에 充實한 指票가 되는 必須雜誌가 되도록 편찬하고 利用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시기를 所願합니다.

꾸준한 기술보급과 정보지로서의 사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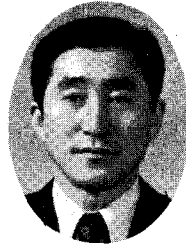


李由方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양계업은 사육수수에 있어서 2 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육규모도 대형화하며 5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호수가 2200여호로 증가되었다. 이와같은 양계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온 월간양계는 명실공히 성실과 근면으로 성장하여 왔고 양계업이 당면한 그 때 그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 특집이나 좌담회를 통하여 문제점 해결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월간양계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첫째 「양계강좌」란을 만들고 육종, 번식, 사양, 질병, 처리가공등 각 분야에 걸쳐 학계나 업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선의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재하므로써 발전하는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둘째 양계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성공담이나 경영체험을 실으므로써 좀 더 가까운 양계가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셋째 수입자유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양계업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비 절감뿐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경영적, 정책적 과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싶다.

더 큰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길



鄭英彩
(중앙대학교 농과대학교수)

“월간 양계” 10년!

우리나라의 축산이 발돋움하던 시기에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推算컨데 120여권이 출간되어 3,000여편의 글이 담겨져 독자에게 읽혀졌으리라 생각된다. 실로 慶賀하며, 편집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싶다. 우리나라와 같이 편집진의 한계성에 비추어 가히 그간의 노고와 인내를 높이 평가 하고 싶다.

양계업계는 그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서도 성장하여 왔다. 업계자체의 문제와 예측할 수 없었던 소비와 생산의 구조, 그리고 이의 조절기능을 상실한 축산정책등은 건실한 발전을 막는 路行的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양축가와 消費者를 보호 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한쪽도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얼마전 어느분이 “우리나라의 畜産은 아직도 未開拓分野이고...”, “先進國의 畜産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어느분인가 앞서고 뒤섰다고들 생각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 畜産은 많은 고통을 안고 참고 견디고 있지만, 1980년대, 2,000년대 우리가 필요한 畜産物을 自給할 수 있는 의욕과 기술을 닦아 놓고 있음은 오늘의 畜産物價格으로 가히 알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畜産物은 輸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의 畜産은 未開拓分野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保護되어야 할 것은 保護를 받아야 하고 保護할 필요가 없는것은 放置해도 좋을진대 이를 근본적으로 區分할 수 있는 政策이 필요하다. 畜産이 未開拓이 아니라 畜産政策이 未開拓일 뿐이다.

“월간 양계”는 우리나라의 畜産誌 가운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많은 養畜知識과 정보 그리고 教養면에서 까지 기여한 바는 더 말할 나위 없거니와, 이 월간 양계를 매체로 양계 업계가 결속하여 지난날과 같은 험한 산과 깊은 물을 넘고 건너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 더 큰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건설적이고 매서운 충고로 책임 다하는 잡지



박항균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월간양계의 창간 10주년을 중심으로 축하한다.

그간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양계 및 관련산업을 지금의 단계까지 발전되도록 함에 있어서 귀지가 이바지한 공은 실로 지대하였다.

사양관리 및 생산물의 처리 가공 유통과 합리적인 양계경영, 그리고 국내외의 새로운 양계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때로 양계정책의 시정당국에 대한 건설적이면서도 매서운 충고가 귀지가 지닌 책임을 다 했다고 여겨

져 더욱 더 친근함을 느끼며 감사 드린다.

앞으로 더 큰 공지와 사명감속에 우리나라 양계발전을 위한 친절하고도 올바른 길잡이가 되는 동시에 사회의 목탁구실까지도 함께 다하여 주기 바란다.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전문지이면서도 대중지로서의 특성 잃지말길

申光淳
(서울보건전문대학)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월간 양계”도 우리나라의 양계산업과 축산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을 치하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꼬집어 낼 점도 찾아 볼 수 있겠다. 아무쪼록 독자들의 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양계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태어 도움되는 몇마디를 한다면,

첫째, 편집의 폭을 좀더 넓혀 다양하게 하였으면 한다. 즉 협회나 업계의 입장에서 의 잡지형태에 너무 집착되지 말고 소비자나 관련산업 또는 유통업계에도 호응될 수 있는 계몽 내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지이면서도 대중지의 성격을 띠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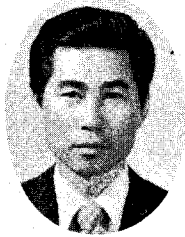
둘째, 다른 전문 또는 대중잡지에 비하여 너무 호화판 잡지의 감을 준다.

광고는 광고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고 보며, 내용의 활자도 필요이상 크지 않나 여겨진다.

혹시 잘못된 견해인지는 모르나 귀지의 발

전과 업계의 도움을 위한 우견임을 겸언한다.
다시한번 귀지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편집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많은 분발을 기대하는 바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 내용의 전문지



곽 중 형
(경상대학 교수)

월간 양계가 이 세상에 태어 난지 10개 성상이 되어 이제 지령 제121호가 나오게 됨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에 축산에 관련된 여러종류의 전문지가 나왔지만 그 중에는 지령을 거듭할수록 내용이 빈약하여 결국 폐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월간 양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다양하게 짜여져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 구독토록 관심을 가지게 됨은 편집진이 잡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전문지는 교양지와는 달리 축산인 내지 양계인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한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사례등을 소개하고 “축산업계동향”을 꾸준히 살려 각종업계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해줌과 동시에 “인사 소식란”을 더욱 보강하여 축산업계 학계 및 행정기관등의 인사이동에 대한 동정을 소개해 주면 독자가 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 한다. 또한 “축산교육기관순례”와 같이 양계업계에 관련된 업체, 양계장등을 소개해 줌도 좋을것 같아 내가 보는 월간

양계에 부탁드리며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월간 양계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100만 양계가족 의 반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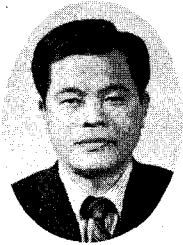


金 大 鎭
(동아대학교 농과대학)

어느덧 10개 星霜이 흘러 대한양계협회의 월간양계지가 창간후 121호 발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참여한 모든 양계가족들의 노력과 봉사에 敬意와 祝賀를 보내는 바입니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는 말과 같이 그동안 우리의 양계산업도 試行錯誤는 있었지만 長足の 進歩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오직 월간양계지가 100만 양계가족들의 苦樂을 같이 하면서 伴侶者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있어서 결코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것 속에 큰것이 있다는 진리와 같이 물방울은 작아도 큰바위를 뚫고 다이아몬드는 큰바위보다 작은것이지만 그가치가 있는것이며 평균 극히 微細 하지만 큰침승이나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듯이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간양계지를 발간하는 일은 작은일 같지만 양계산업의 기수로써 매우 重 일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양계산업의 기반 조성과 양계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上昇効果를 얻을수 있는 微量要素들까지도 고려하여 대화의 광장을 넓히면서 양계 전문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세계속의 월간양계가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서 월간양계의

무궁한 발전이 우리양계산업의 발전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양계가족들의 참여속에 발전이 있기를 믿어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나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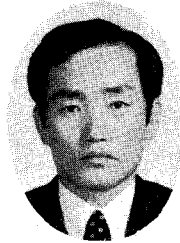
하정기
(경상대학 축산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동안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굳굳이 발전하여 10주년을 맞게 된 월간양계지와 아울러 그간 이 잡지의 사양관리자로서의 목장장님과 목부님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회고 하전데 지난 10년간 월간양계는 양계인의 길잡이로서 양계인을 지도 계몽하는 무거운 책임을 도맡아 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양계인의 처지를 대변함은 물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또 그것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준 양계인의 나침판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차고,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서 명실공히 더욱 책임성있는 양계인의 길잡이가 되어야 겠다는 정신으로서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것을 외람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잡지의 출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같이 합과 동시에 다른 잡지에 비해 더욱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주도적 역할을



徐國聖
(계명대학교 전문부축산과)

먼저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월간양계”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월간양계”를 받아볼때마다 각종 기술정보와 더불어 업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두언」, 시사성있는 문제점을 해설하는 「안테나」, 「특집」등을 우선 탐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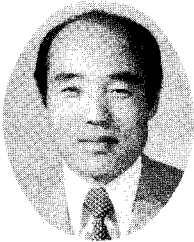
때로는 생산기술 보급, 사료대책, 방역대책, 가격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생산조절, 유통구조 개선, 양계 생산물의 소비확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들은 앞으로의 한국양계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길잡이가 되는 동시에 국내 축산업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월간양계”에 좀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보다 많은 의견이 집약될수 있는 광장이되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기술정보와 양계생산물의 대량소비 촉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 자동 판매대와 같은 삶은 계란 자동판매대의 개발 가능성, 술안주용 오징어포와 같은 계육진포, 또는 가염조미한 계육안주, 계육 소

세지등의 대량생산 및 보급문제, 소비자 특히 각급 학교학생들에 대한 양계생산물의 홍보활동 강화등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양계산업과 더불어 월간양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양계산업진흥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趙憲祚
(상주농잠전문대학 축산학과)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큰 月刊養鷄誌가 創刊 10週年을 맞아 年輪과 業績을 자랑하게 됨에 먼저 眞心으로 敬意를 표합니다.

그동안 月刊養鷄誌는 養畜家들의 情報誌로서 畜産誌中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받고 萬人을 위한 協意誌로서 자리를 굳게 한바 있으며 養鷄業의 發展을 위해 공헌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養鷄協會소식, 시세통보등은 養畜家에게 많은 공헌을 하였고 환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80年代의 養鷄産業進興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내용을 꾸미고, 협회소식과 그 機能을 강화하여 養鷄인의 權益保護와 養鷄産業進興을 위하여 한층더 최선의 努力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전문적지식과 실제적인 기술의 등불



孟元在
(중앙대학교 농과대학)

양계분야뿐만 아니라 全畜産分野의 繁榮을 위한 專門誌로서 창간 10주년을 맞는 “월간양계”는 그 年輪이 말해주듯이 畜産發展에 기여한 功勞라든가 畜産人의 좋은 案内書로서 또는 參考書로서 主導的 役割을 담당해온 본誌의 業績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나 언제나 畜産人들과 함께 喜怒哀를 같이 했고 또 어려운 時期에는 解結策을 찾기 위해 힘써왔던 자취를 보다 인상깊게 찾아볼 수 있는 월간지였다. 월간양계의 年輪과 그간의 業績은 독자에게 호소력을 갖게 하며 파고드는 힘이 큰 만큼 무거운 짐을 실은 커다란 배라고 칭하고 싶다. 그리고 계속 畜産人의 눈과 입과 귀를 代表하는 專門誌로서의 발돋움에 더욱 拍車를 가할 것을 덧붙여 부탁한다. 畜産人의 正當한 利益을 위해서 어떤 극한 狀況下에서도 解明하고 設得하는 그리고 團結을 呼訴할 줄도 아는 案内者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機關이나 團體에 精確한 意志를 表할 줄도 아는 그리고 畜産人의 여론을 代表하는 專門指導誌로서의 發展을 더욱 기대해 본다. 그리고 專門的 知識과 實際的인 技術의 등불로서 그리고 畜産人에게 세계적인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전해 주는 媒介者로서 충실한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줄것을 기대하며 꾸준한 발전을 기대한다.

올바른 양계산업의 지 표를 제시한 기술정보지

李 喜 求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이사)

歲月10년에江山이 변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變化의 度가 커서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韓國의 畜産이요, 그중에서도 養鷄分野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過去의 副業養鷄와 現在의 企業養鷄는 그야말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이는 養鷄用 動物藥品需要量增加정도만 보아도 짐사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을 차치하고라도 오늘의 企業養鷄가 있기까지의 貴誌의 努力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産業이 發展하려면 반드시 指標가 될 수 있는 技術情報誌가 있어야 하며 모든 자세한 養鷄經營상의 問題點, 技術的인 補助, 外國으로부터의 새롭고 신속한 情報入收 및 보급 올바른 養鷄産業 指標의 提示, 그리고 近間의 닭고기 消費促進을 위한 努力등 養鷄分野의 얼굴로서의 貴誌의 業績에 대하여 畜産家族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특히 貴協會의 産學協同하는 姿勢와, 새로운 技術의 傳達 및 과감한 實行은 他産業分野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成長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畜産人들은 뼈저린 體驗을 통하여 어느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始作은 있어도 끝은 없는 것이 畜

産의 길입니다. 最近의 物價上昇과 不景氣로 인한 畜産物 消費減退에 의하여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감안해 볼때 지금까지의 成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國民의 生活水準向上과 이에 따른 畜産消費는 크게보아 계속 늘어나는 趨勢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畜産物需要에 차질없이 대처해나가기 위해서, 또 동시에 養鷄業者의 保護를 위하여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 줄 것을 재삼 당부하면서 더욱 알찬 貴誌의 發展을 비는 바입니다.

현장과 더욱 밀착하여 양계인의 여론을 주도하길

안 철 희

(서림부회장 전무)

우선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월간양계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술한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양계 전문지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것은 오로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밑에 노력해 오신 양계협회 직원제위의 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진외국의 사양기술과 국내외의 학술연구를 신속히 도입 소개하고 업계의 동향과 정보를 교환하며 그때 그때 업계의 당면과제를 광범위하게 파헤침으로서 양계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왔습니다. 욕심을 내어 귀지에 의 요망이 있다면 실제 양계업을 운영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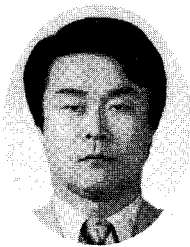
분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관리기술의 소개에 좀더 노력해 주시고 생산, 유통, 소비 전 부문에 걸쳐 전국적인 조직망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와 자료를 신속히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업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양계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여론을 주도하여 관계당국에 선의의 압력단체로서 양계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양계인의 입과 눈과 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인 정보도 귀중한 資料임에 틀림없으나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飼養管理, 防疫, 經營管理등이 풍부하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 신선한 이야기들이 꼭 지켜야 할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날의 畜産人들이 좀더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곤 합니다. 귀한 교과서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늘 기대와 설레임속에 펼쳐보는 책



徐元錫
(우성실업(주) 업무부차장)

역시 “월간양계”가



이순실
(전호부화장)

창간 10주년을 祝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貴協會가 畜産業 發展에 심혈을 기울이며 노력하시는 정성을, 畜産人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양계」는 新刊이 나올 때마다 기대와 작은 설레임속에서 펼쳐 보곤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이겠습니다만 때로는 몇 페이지의 좋은 내용에 흡족함도 있었으나 때로는 귀한 것을 잃어버린 섭섭함도 간혹 있었습니다.

「월간양계」가 모든 독자의 만족도를 다 채울 수는 없겠으나, 제가 원하는 것은 좀더 「양계인의 편」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점등으로 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닭 치는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늘 가까이 하는 귀

월간양계 하면 이제 전 축산분야를 통하여 명실공히 가장 알차고 짜임새 있는 축산전문지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잡지자체의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때로이 발간되는 기획물은 타지가 흉내낼 수 없는 월간양계만의 저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히 이 번에 발간될 예정인 “양계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간 사료, 약품, 질병, 경기진단, 가공, 유통구조개선, 소비촉진등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볼 때마다 “역시 월간양계로구나”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비단나 혼자만은 아니었을 듯싶다. 이러한 이면에는 월간양계를 편집하시는 분들의 남모르는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며, 본 지면

을 통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지난 '73년이래, 다시 한번 밀어닥친 유류파동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곧 또 다시 유류가격의 인상초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앞으로 우리 양계업은 세계감면혜택의 중단과 더불어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체 양계업자들의 힘과 슬기가 하나로 뭉쳐져야 할 것이며, 월간양계가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새로운 사양관리기술의 개발과 보급, 합리적인 경영방식의 소개등을 통하여 탁상공론격인 이론의 소개보다는 실제적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월간양계"라는 제호의 의미대로 전체 양계인을 위한, 양계인에 의한, 그리고 양계인의 잡지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기술과 지식을 스크랩하며



민 봉 기
(한일사료(주) 영업부)

언젠가 신문에 난 모 월간잡지의 광고기사에 이런글이 실린것을 본 기억이 있다. 「△△△」는 제달에 나오는 잡지입니다" 아마도 이 글은 그달의 우리네 생활에 밀착한 기사로 짜여진 잡지란것을 강조한 내용의 것이리라 우리 양계인의 전문지인 월간양계가 이처럼 제달에 나오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달에 필요한 사양관리와 방역및 질병대책, 최신 기

술정보와 새로운 양계관련 법규, 심지어 사사로운 업계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처럼 그달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살펴 주고있는 것이다.

학생시절 H농원에서 실습 도중에 겪었던 일이다. 강의실에서 주로 책만으로 공부해왔던 나에게 실제적으로 농장에서 일하게되니 모든게 어설프고 모르는것들 뿐이었다. 지식의 정립이 덜되어 있어 쟁겨간 몇권의 교과서만으로는 답답함을 풀 수가 없었다. 이럴 때 그 농장의 기사로 계시던 나의 선배되시는 분이 두툼한 스크랩북을 꺼내 보여주셨다 그곳에는 몇해전부터 인지 모르게 월간양계에 실렸던 질병관계와 사양관리등에 대한 중요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스크랩이 되어있었다 사람은 죽을때까지 공부해도 다 못배운다고 하지않는가? 그 선배님은 전문서적이 많지 않은 양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이 스크랩북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스크랩북은 지금까지도 그 선배님의 소중한 재산으로써 더욱 두터워져가고 있다.그당시 더욱 놀란것은 그농장의 농장장님의에도 많은기사분들이 이와 똑같은 스크랩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뒤늦게나마 나도 새로운 재산으로써 월간양계를 모아 스크랩북을 채워 가게되었다. 나는 그속에서 오랫동안 찾아 뵈지 못했던 은사님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뵈을 수가 있으며 고견을 듣게 되어 다시금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업계에 몸을 담아 사양가들과의 접촉이 잦아진 요즘에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월간양계를 권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다, 재미(?)가 없다는등 별흥미를 갖지않던 그들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접한다는 기쁨에 월초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월간양계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의 조그마한 양계장에라도 월간양계는 우리 양계인의 벗으로써 한권씩은 안방에 놓여지게 되었다. 월간양계가 우리 양계인의 배움의 희망으로써 재지식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이 아닐까?

제달에 나오는 책 월간양계가 우리 양계인의 소중한 재산으로써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래오래 그 가치를 더해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균형있는 축산발전의 活力있는 숨결



李相穆
(홍성사료(주))

韓國畜産發展을 加速化시켜온 表像, 10年!
이제 月初면 各界의 권위있는 執筆者的 두뇌를 담아 湄방울로 엮은 月刊養鷄가 단골손님이 아닐 수 없다. 初生雛出何狀況, 產物時勢, 技術 및 정보게재 등은 飼養家에 優秀한 活用資料가 될 뿐만 아니라 生産量 加減에도 日익을 담당하여 均衡있는 養鷄産業의 發展에 기여하여 왔음에 깊은 讚謝를 올리며 永久精進하기를 期待한다.

讀者의 한사람으로 月刊養鷄뿐만 아니라 畜産關係雜誌에 욕심을 부려 본다면, 우선 全國民이 執筆者, 그리고 愛讀者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一部 권위자의 執筆도, 指導者의 方案도 중요하지만 生産, 處理, 消費를 거치는 매스미디어로 全國民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大衆의 月刊誌임을 確認시켜야 되겠다.

다음으로, 紙上相談室의 活用으로 現場發言이 政策樹立에 기여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坊坊曲曲 實際現場의 深中에 도사리는 깊은 問題를 根本적으로 治癒해야 될 것이며 또한 現場을 外面한 月刊誌의 成長은 砂上樓閣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韓國實情에 맞는 均衡있는 畜産發展의 活力있는 숨결이어야 할 것이다. 企業畜産의 發展이나, 副業畜産의 獎勵이나하는 問題는 多角的인 檢討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畜産의 均衡된 發展, 飼養技術의 革新, 韓國農村의 近代化에 피와 땀을 불사르던 1次産業闘士들이 차갑게 外面하고 등돌리는 사례가 發生치 않도록 힘과 勇氣의 햇불로서 구실을 다해야 되겠다.

질 좋은 광고로 책 품위 살리길



옥춘광
(제일사료(주) 차장)

월간양계를 받아들면, 우선 250 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한 책의 중량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내지 신뢰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장도 그냥 넘길수 없는 알찬 내용들로만 거대한 볼륨의 책을 매월 발행일에 맞춰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책 만드는 이들의 피땀 어린 분발을 짐작케 한다.

매월 안테나는 빠르고 바른 업계뉴스를 알기쉽게 손에 쥐어주고 있고, 특집은 언제나 가장 절박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어프로치하는데 항상 기대 이상일 뿐 아니라 한국축산의 미래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

업계동향란은 아마도 100% 읽히는 란이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왕래가 뜸한 은사·선후배 또는 아낌을 주고 받는 많은 업계인사들의 변화를 소상히 알 수 있어 큰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다.

구태여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면, 농이상의 면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의 질을 보다 매력적으로 깔끔하고 품위있고 정직하여 기분 좋은 것으로 유도하여야 하겠다. 이런면에서 광고주에게 컨설턴트의 역할이 필요하다. 좋은 책은 좋은 광고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